문화재연구시설 상량…"체계적 관리 기대"

조계종 종단불사추진위, 11월 29일 양평군 부지서

지상2층 · 지하2층, 연면적 2천평
보존처리실 · 분석실 등 들어서
봉선사 · 용문사가 부지 기부해

양평=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문화유산의 진단과 보존, 복원 및 연구를 실시할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상량판을 내걸었다.

조계종 종단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29일 오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부지에서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상량식'을 봉행했다. 상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불사추진위 총도감 만당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최응천 문화재청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 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사업은 불교문화유산의 전승체계 확립과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및 복원방안 강구, 보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화재 가치와 원형성을 보존 · 복원하고 전통 법식을 계승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3년 4월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7년부터 8년에 걸쳐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한다. 2020년 부지가 확정되고 2021년 6월 건축허가 승인, 2022년 4월 착공 이후 상량식을 거쳐 내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양평군 부지는 제25교구본사 봉선사와 용문사의 기부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연구시설은 대지면적 5019㎡(1518평), 건축면적 1889㎡(571평), 연면적 6769(2048평)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상에는 사무실과 자료실, 분석실, 보존처리실, 수장고가, 지하에는 대형불화 보존처리실과 전시실,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한국의 대다수 문화재가 불교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전문 연구시설로서 분야별 과학적 보존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은 민족 정체성과 직결된 전통문화재의 보존과 복원, 전승을 담당할 중요한 거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불사"라며 "전 총무원장이신 자승 스님의 원력으로 2013년 시작된 이후 대외환경 변화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상량식을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계종 종단불사추진위가 양평군 공흥리 부지에 건립 중인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상량식에서 내빈이 상량판을 개막하고 있다.

스님은 이어 "일차적으로 우리 민족문화의 보고인 불교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나아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역할과 더불어 기획전시로 방문객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환영사에서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은 그동안 사찰을 중심으로 스님들과 불자들의 노력으로 보존 · 전승했으나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문화재를 연구 · 관리하는 시설 건립불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연구시설은 불교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수장고와 엑스레이실, 대형불화처리실, 훈증실과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께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연구시설이 개관하면 더욱 많은 문화유산이 과학적인 보존시설과 전문화된 시스템 안에서 연구되고 활용될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외에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전진선 양평군수도 단상에 올라 연구시설 건립불사가 원만 회향하길 기원했다. 이어 주요 내빈들은 마룻대가 없는 현대식 건물을 감안해 상량판을 대신 개막하며 상량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송현광장 이승만기념관 건립 사실무근"

박민식 보훈부 장관, 진우 스님 예방서 밝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최근 불교계의 공분을 산 송현열린 녹지광장의 이승만기념관 건립 논란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민식 장관은 1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 우봉 스님, 호법부장 보운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이 배석했다.

진우 스님은 "여러 언론매체를 살펴보니 송현열린 녹지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서울시장 역시 긍정적으로 이를 검토하는 모양새"라며 "관점에 따라, 진영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불교계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좋은 인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특히 "이승만은 대처승과 비구승 간의 갈등 속에서 불교계 내부의 혼란만 부추긴 장본인일 뿐 아니라 기독교 사상에 심취한 인물"이라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통합과 화합을 저해하고 더 큰 불화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윤석열 정부의 장 · 차관, 대통령실 참모, 군 장성까지 불자가 전무한 현실도 조목조목 짚으며 "정부의 반복된 친개신교 행보에 본사주지 스님들부터 종회의원 스님들, 원로 스님들까지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민식 장관은 녹지광장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 논란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입지와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또 "총무원장스님의 말씀과 불교계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호국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용산 인근에 영령관 건립도 제안했다. 스님은 "어느 나라나 역사가 이어져 올 수 있던 이유는 선대가 나라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받친 스님들과 불자들에 대한 역할과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호국정신 함양과 보존을 위해 국가에 이바지한 모든 이들을 추모하고, 종합적인 예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용산 공원에 호국정신을 담은 공원 계획을 갖고 있다"며 "후손들이 알아야 할 호국의 역사와 인물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내영 기자

제35회 조계종 포교대상에 계호 스님

공로상 화봉 · 진성 스님 등 선정
12일 역사문화기념관서 시상식

제35회 조계종 포교대상 종정 표창에 서울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은 11월 29일 '불기 2567년 제35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포교대상은 포교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스님과 재가 및 사찰, 단체의 공로를 치하하며 불교적 자긍심 고취 및 포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계호 스님은 수행과 문화로 전법하는 진관사 회주로서 산사음악회, 산사음식시연회, 국행수륙재 등 문화행사와 기도 · 수행 · 명상 · 교육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교활동에 진력해왔다. 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지역복지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음식 명장으로 2009년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를 설립, 사찰음식을 국내외에 소개했으며 불교와 국가 위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문화, 지역포교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총무원장 표창인 공로상에는 △민주평화통일 대통령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화봉 스님 △경산백천종합사회복지관장 진성 스님 △이영숙 제11교구 신도회장(중신회 · 전국여성불자회 부회장) △우현의 국군불교총신도회 후원회장이 선정됐다.

화봉 스님은 국제포교사로서 LA대각사를 창건했고 호놀룰루 와이키키 관음사에서 국제 포교활동을 펼쳤다. 또 교도소 교화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진성 스님은 노인복지관 등 교구지역 노인복지와 포교에 진력하고 있다. 이영숙 제11교구 신도회장은 중신회 및 전국여성불자회 부회장, 불국사 신도회장으로 신도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여성불자 경제인으로 대사회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현의 국군불교총신도회 후원회장은 행사 동참과 후원으로 군불교 발전에 공헌했고 군법당 12곳에 매분기 포교활동 지원금을 후원하고 있다.



포교원장 표창인 원력상에는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 해동 스님 △동련 광주지부회장 지장 스님 △신영숙 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 △이영선 국제선센터 법당봉사팀장 △김동교 완도 신흥사 신도회장이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

해동 스님은 신구대, 성남중원경찰서, 평택구치소 등에서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지역 포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성남 흥법사 주지다. 지장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갖고 동련, 파라미타에서 법회지도 활동에 진력하고 있다. 또 광주BBS 등 방송프로그램 포교활동도 펼친다. 신영숙 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은 상월결사 수미산원정대 3기로, 봉사와 신행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영선 국제선센터 법당봉사팀장은 사찰과 지역 소외계층 봉사와 새신도 대상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김동교 완도 신흥사 신도회장은 완도지역 청소년 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신흥사 신도자원봉사단체를 조직, 지역포교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제35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은 12월 12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임은호 기자

"의밀심인당, 대구 포교활성화 기대"

진각종, 의밀심인당 헌공불사 · 본존이운가지불사

대구시 달성동에 심인진리 도량이 법계에 헌공됐다.

진각종(통리원장 도진 정사)은 11월 28일 오후 2시 의밀심인당(대구시 중구 달성동 179-3) 헌공불사 및 본존이운가지불사를 봉행했다.〈사진〉 의밀심인당은 연면적 809.76㎡,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층 사택 및 접견실, 2층 법담실, 3층 심인당이 자리하고 있다.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기념사를 통해 "진기 2년 첫 교화의 문을 열었던 의밀심인당은 초기 교화의 반석고도 같았던 주요한 전당이었다"면서 "의밀심인당이 향후 종단의 교화불사를 견인하면서 대구교구의 포교활성화에 활력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밀심인당 주교 수혜 정사는 "20년을 넘게 교화하면서 길상심인당을 비롯해 교석, 능인, 의밀심인당 헌공불사 등 큰 불사와 인연이 깊다"며 "법계에서



심인당을 넓고 크고 둥글고 차게 만들어 주었으니, 내 마음을 넓고 크고 둥글고 차게 만들어 이 지역을 심인진리로 만들도록 용맹정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교구 금강회장 명학 각자는 "의밀심인당 발전과 함께 대구교구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정지 의밀심인당 금강회장은 "의밀심인당을 더욱 넓고 크고 둥근 마음으로 화합하고 용맹정진해 더욱 빛나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